



e-mail. [holyflameministries@yahoo.com](mailto:holyflameministries@yahoo.com) office. 778-394-4777 cell. 604-825-0077

[www.holyflameministries.com](http://www.holyflameministries.com)

### 4월에 드리는 홀리플레임 소식...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1-25)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오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해주신 동역자 모든 분들께 감사함으로 4월에 홀리플레임 소식 전합니다.

3월 29일 해프웨이 소망스쿨을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소그룹으로 오픈한 소망스쿨에 지역교회에서 참여한 사역자들, 그리고 초청강사 두분과 함께 교도소 관련 전반적 사항들을 나누었습니다.

영적돌봄이들의 영성과, 영혼들을 대하는 섬김의 태도, 그리고 수감자였던 사역자의 간증으로 이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두의 상한 심령에 소망을 심는일은 주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앞이라”*

주님의 소원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긍휼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수감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기도하며 다음 스쿨을 준비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발렌티어가 없었던 날에 먼길을 달려오셔서 애찬을 준비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통역으로, 여러 모양의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한분한분 축복합니다.



♥ 미용사가 꿈인 캔디스가 교도소에서 출감해 잠시 쉼터에 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 곧 이사를 갑니다.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 7일 해프웨이 하우스 자매들의 소셜 액티비티의 하나로 한국 식당에 초대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두분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며 해프웨이 하우스에서 온 가석방자들과 교제의 깊이를 더해준 자매님, 사랑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석방자들의 마음가운데, 삶속에도 부어지길 소원해봅니다.



♥ 4월 14일 Surrey Urban Mission place에서 성금요일을 맞아 홀리스를 위한 숭키친 사역이 있었습니다. 홀리플레이밍 동역자 몇분과 예수 생명교회,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님들, Redemption Community Church 목사님 가족의 참여로 부요하게 치뤄진 사역이었습니다. 꾸준히 찾아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손길과 눈에는 주님의 마음이 남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홀리스 자매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중 예수 생명교회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제되시는 사무엘이 함께 이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안에서 중독으로 망가진 모든 삶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해봅니다.



♥ 4월 15일. 다운타운 해프웨이 하우스에서 시온교회 조 데이빗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이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한 본인들의 소개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서로를 알아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꿈에 대해 나누는 삶에 편안한 우리들 이지만 그것조차 저들에겐 민감할수도 있는 부분이란것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중 두 영혼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발에 gps같은 발찌도 찾구요. 꿈대신에 goal이란 표현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을 나눈 자매도 인상깊습니다.

한가지 많이 미안했던 것은 현재 임신한 자매의 나눔을 제가 잊고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

람을 동시에 만나기에 마음이 바쁘기도 했지만, 한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던지요. 이 자매는 현재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오후에 일을 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와 태아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 임하며 물질적으로도 필요한것들이 채워지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번주 토요일 (4월 29일)엔 인도 자매님이 함께 이 소그룹모임에 조인하기로 되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 하와이 복음방송에 “나는 자유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지도 벌써 72주가 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속에 묶여 있는 어둠의 영역들로 고통받고 있거나 혹은 그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케된 스토리들도 나누며 회복의 시간을 더 갖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업서싸이즈의 글이나 기도를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복음 방송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손모아 주세요.

♥ 4월 26일 Fraser Valley Institution 여자 연방 교도소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역으로 인한 교도소 채플린과의 만남후 한 행사장에 잠시 들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젠 교도소를 섬겨주시는 발렌티어들을 교도소 자체에서 웰컴하는 날이라 가석방자의 집에 있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자매를 만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인채 절 와락 끌어안고는 아이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친구가 죽고, 여러 일들로 실수를 해서 다시 갇히게 되었는데 몇 개월이면 다시 나와 제가 섬기는 가석방자의 집으로 돌아간다구요. 도와달라구요...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그리고 그녀를 안으면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짐을 받으며 다시한번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토록 작은 자... 그러나 주님 저 영혼들을 위해 제대로 섬길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구요. 함께 저 영혼들을 섬겨줄 지체들을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 중보기도후원과 물질 후원

♥ 주일날 4시에 있을 예배와 월요일 저녁의 성경공부 소그룹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방교도소의 진행은 참으로 느립니다. 교도소자체의 법도 계속 바뀌고 강화되고 복잡해서 발렌티어 지원도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뚫어야 할 과제는 크리스찬만의 프로그램보다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다 받아 들일수 있는 만남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닌것을 아니라고 진리를 전하는 메시지보다 때로 영혼 자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인본주의적 시스템이 강합니다. 채플린들의 고민이기도 한 부분인데 점점 좁은 문의 복음전파가 흐려지는 것을 볼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갔던 인도인 크리스찬 자매와 차안에서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나누며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바로 증거하는데 모든 섬기는 지체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들이 진리가운데로 인도되어지도록 성령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이 사역가운데 헌신할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야만 만날수 있고, 만나야만 전달이 되어질 복음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과, 사역이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 해프웨이 하우스에 머무는 자매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나 소그룹으로 지원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데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특히 악한 영들의 계획들이 교도소안에서도 강하게 역사하는데 흑암의 세력들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더 이상 서로 죽고 죽이는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보기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타고 다니던 벤이 문제가 많아 장거리 사역엔 불편함이 많아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의 후원으로 중고 벤을 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의 기능으로 인한 사고없이 사명을 잘 마칠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벤이 구해지길 원할 때 혹시 차량 제공이나 판매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04-825-0077)

▶ 해프웨이 하우스 가석방자들을 위한 깨끗한 옷과 신발류,

▶ 파워포인트 및 사역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프로젝터와 비디오 카메라

▶ 예배를 위한 적당한 사이즈의 키보드

진정한 예배,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하신 킹덤 패밀리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 드리며 남은 날들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성금요일에 섬겨주신 지역교회의 성도님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홈리스 여인...

♥경찰서에 속해있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한 자매의 그림과 사랑의 편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34-35)*